

예수는 누구인가? 모든 복음서의 출발점이자 초점이며, 요한복음은 끊임 없이 예수의 정체성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—을 비유로 얘기한다: “나는 목자다/문이다.” 양 없는 목자를 생각할 수 없고, 드나드는 사람 없는 문을 생각할 수 없다. 곧 우리들 이야기다.

#### A. 예수와 예루살렘

##### 1. 예수: 목자와 문

- 목자: 하느님의 대리통치자 이미지 (에스겔 34 장. Cf. 34:23; 37:24). “목자 없는 양”(민 27:16-17=> 왕상 22:14)
- 누가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대신하나?
- “도둑과 강도”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? 그리고 “삯꾼(μισθωτός, the hired)?

##### 2. 양과 신앙공동체

- 어떤 신앙? (신앙/신학/가치관의 다양성 전제)
- 테두리, 생활환경=> 예수(“문”)를 통하지 않은 삶은 위험.
  - 예수공동체=> 다른 사람/목자(?)의 목소리(이데올로기)를 따르지 않음(6절)
  - 나를 말미암아/거쳐서/통하여(δι’ ἐμοῦ, through me)
  -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란?(16절) => 요한 공동체의 관심사

#### B. 하나님의 아들=> “신”

##### 1.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

- Common (mis-)understanding: 예수가 하나님=> 돌로치려 하고(10:31), 잡으려 함(10:39)
- 너희 율법(토라)에--
  - 시편 82:6 (You are gods, the sons of the Most High=> divine council)
  - 출 4:16

##### 2. 논쟁의 초점은?

- “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자/말씀이 임한 자”(35절)가 누구인가?
  -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(개역); “My Father ... is greater than all”(RSV)
  -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다(공동번역); The sheep are => “What my Father has given me is greater than all”(NRSV)
- 소명의식=> 우리 그리스도인들
  - 정체성
  - 생활방식

#### ----- 생각해 보기

1.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/가치관/지도자—“목자”는? (그리고 다른 “목자”는?)
2.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“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” 생활을 하는가? 예를 들면...